

2026 August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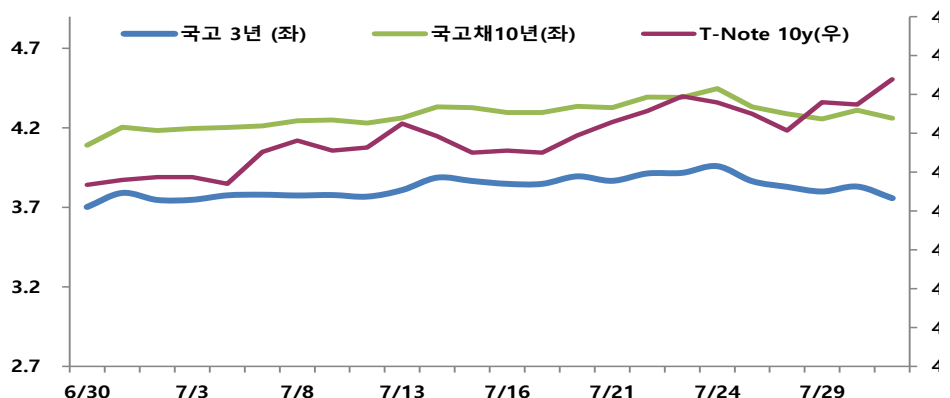
7월 동향

월 중 내내 중동 불확실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을 높인 주요인이었던 가운데, 국내 성장세 호조 등도 상승 추세에 영향. 하지만, 후반 낮아지는 미 CPI와 유가 하락세 전환 및 국내 수급의 긍정적 요인 등으로 급락세 시현하며 마감

- 월 초, 미 6월 비농업고용지표 부진 반영하며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코스피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등이 상단 제한했으나, 중동 긴장감 확대된 영향이 상승 압력을 높인 형국. 하지만 한은의 절제된 매파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 시현
 - 월 초, 6월 미국 비농업고용지표의 부진과 코스피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 요인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 출발
 - 이어 증시의 변동성 전이 영향이 지속되었지만, 중동 전쟁의 재격화 움직임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반영되는 모습을 나타냄. 하지만 한은 총재의 국회보고에서의 완화된 매파 언급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 전환 추세 이어지는 모습 시현
- 중반, 중동 이슈 격화 양상 전환이 연준 매파 자극할 요인으로 우려를 키웠지만, 미 CPI가 예상밖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른 영향과 한은 금통위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 등으로 금리는 하락 추세 이어진 국면
 - 중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재격화하며 국제유가 상승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증시 관련 안전자산 선호 요인이 금리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재차 mou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전쟁 양상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 전환
 - 하지만, 미 cpi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가운데 한은 금통위의 2.75% 금리 인상 결정에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총재 회견 등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하락 전환. 그러나 8월까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금리 하단을 강하게 제한한 양상
- 후반까지, 중동 협상 불확실성으로 유가변동성이 금리 향방에 영향 미친 가운데 국내 견조한 2분기 성장률 결과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 미친 양상. 이어 미-이란 협상 진행 소식에 유가 연속 하락 추세에도 FOMC 매파적 3인 인상 주장 결과 등으로 상승세 이어졌으나, 후반, 긍정적 수급 요인 등으로 급락 시현하며 마감
 - 후반, 중동 이슈 확대의 인플레이션 우려 영향 및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속 국내 2분기 서프라이즈 성장률이 8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반영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추세 전환
 - 이어, 미-이란 휴전 협상 진행 전환 소식으로 국제유가 연속 하락세 나타났지만, 한은 총재 매파적 금리인상 기조 유지 언급과 FOMC 매파적 결과 등으로 금리 상승 추세 이어진 모습. 하지만 월 후반, 대내 긍정적 수급 요인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급락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7월 평균
국고채(3년): 3.83%
T-Note(10년): 4.59



8 월 전망

생산성 혁신에 따른 성장 전망 상향 등의 요인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높일 전망 속 연준 및 한은의 물가 중시 매파 성향도 국내외 금리 상승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최근 유가 하락세 등의 요인이 국고채 금리 상단 제한할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19	3.62	3.65 ^(f)	3.5 ^(f)

- 미 7월 비농업고용지표의 부진에도 물가 대응 중시 연준 매파적 기조 지속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예상 하지만, 최근 중동 전쟁 완화 국면 속에 유가 상승 흐름이 다소 약화된 영향과 연준 의장의 나홀로 도비시에 대한 시장 기대 등이 국내외 금리 상단 제한할 것으로 전망

- 7월 미 고용시장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간 격화된 중동 전쟁 따른 유가 상방 압력 등으로 여전히 연준 기조는 데이터 중시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지며 중단기 흐름에서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이는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미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 및 이에 대한 워시 의장의 나홀로 도비시 스탠스에 대한 시장 기대 등이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외적으로 한-미 성장 모멘텀이 주요 선진국 중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용시장의 균형 상태 고려 시, 일드 커브 우상향 추세 지속되며 장기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예상. 하지만, 최근 중동 이슈 완화 및 이에 따른 중앙은행 금리인상 지연 요인 등이 글로벌 장기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선진국가들 중 한-미의 성장이 생산성 혁신을 기반으로 우월하게 나타날 전망. 여기에 미국의 경우 고용시장이 일정 부분 균형을 보이는 측면 고려 시, 일드커브 우상향 추세 지속하는 가운데 장기 금리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추가 공급 제한 속 협상 가능성에 따른 유가 안정세에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 결정을 지연하는 요인 등이 국내외 장기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 미-이란 중동 출구전략 모색에 따른 유가 하락과 외환시장 수급 호조의 환율 영향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국면. 여기에 최근 코스피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가계 등의 자산소득 효과 감소 등을 한은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전반적 기조는 물가 대응 매파이나 데이터 방향성 고려하며 통화정책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금리 상단 제한할 전망

- 최근 중동 전쟁의 미-이란 출구전략 모색 등에 따른 유가 하락 추세와 이에 대한 영향 및 수급 호조를 동반한 환율 하락 영향이 물가 안정 기조에 기여하는 국면
- 여기에 최근 중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가계 자산소득 감소 효과 등을 한은이 통화정책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임. 이에 한은 기조는 전반적으로 물가 대응 매파를 유지하겠지만, 최근 대내외 매크로 상황의 데이터 방향성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이에 단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8월 전망
3.65%~3.80%

상승요인	하락요인
· 한-미 생산성 중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 강화 지속 · 주요 연준 위원들의 여전히 물가 대응 매파 인식	· 연준 의장의 도비시 성향에 대한 시장 기대 · 미-이란 출구전략 모색 속, 유가 하락 추세 · 국내 소비자 물가 하락 추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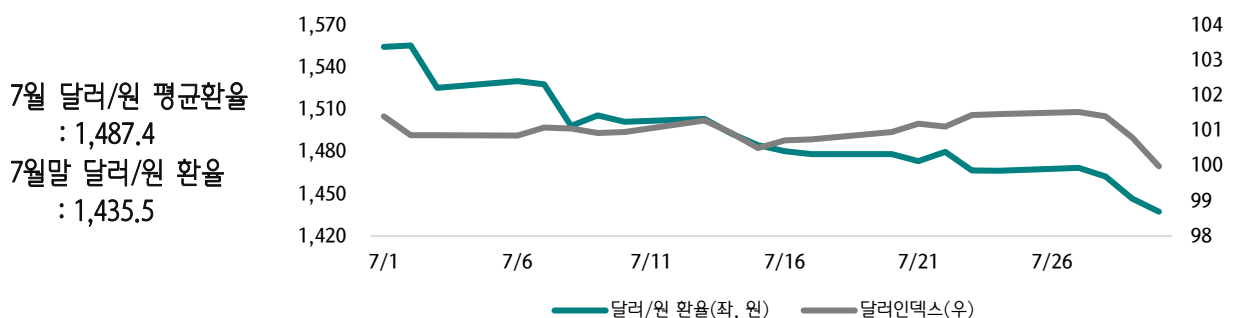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7 월 동향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반등, 연준 금리인상 우려 등 대외 악재 속에서 1,500원 중반까지 급등했던 환율은, 수급 환경 개선과 견조한 펀더멘털, 한은의 매파 스탠스 등 긍정적 대내 동력에 힘입어 1,400원 중반대까지 급락세 시현

- 월초,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화 약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매도세 등 악재 속에 환율은 1,500원 중반대에서 출발했으나, 외환당국 경계감과 수급 개선 기대 등 대내 여건이 호전되면서 1,500원 초반대로 급락
 -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과 엔화 약세 영향이 맞물리며 환율은 1,560원 턱밑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미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와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하락 전환. 다만, 외국인의 증시 매도세가 이어지며 1,530원선에서 하단 지지됨
 - 한편,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에도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여기에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 증시 상장 자금 유입 기대와 중공업체 선물환 매도 등 수급 풀림이 완화될 가능성 부각되자 장중 1,500원선을 하회
- 월 중반, 국제유가 급등과 연준 인사의 매파적 태도 등이 글로벌 강달러를 자극했으나, 미 물가 둔화 안도감 속 주요 수출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 등 매도 우위의 수급 여건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1,400원 후반대로 하락
 - 중반 들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 등 매도 우위 수급 여건 등이 원화 강세를 견인하며 1,490원대에 안착
 - 이후 미국 6월 CPI가 컨센서스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연준 긴축 우려 및 강달러 흐름이 완화되며 환율 하락세 이어졌으나, 글로벌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 급락과 중동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 반영되며 1,400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
- 후반,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도 우위 수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조기 긴축 경계감 완화와 일본 당국의 환시 개입에 따른 엔화 가치 급등으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은 1,400원 초반대로 추가 하락하며 마감
 - 후반, 미국과 이란 간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90달러대로 올라서며 연준 긴축 경계감이 재차 높아지는 등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었지만, 수출업체 달러 매도세와 환율 상승 기대 조정 등 국내 수급 요인이 상방 압력을 상쇄하면서 1,400원 중반대까지 하단을 낮춤
 - 이후 중동 무력 충돌 중단에 따른 유가 안정과 워시 연준 의장의 다소 도비시한 발언, 일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으로 인한 엔화 강세 등이 글로벌 달러 약세를 자극, 이에 환율은 한때 1,410원대까지 급락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430원대 중반에서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8 월 전망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중동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은 여전히 환율 상방 압력을 자극하겠지만, 엔화 약세 부담 및 지정학적 민감도가 완화된 가운데 우호적 수급 여건이 더해지며 하방 압력이 다소 우세할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67	1,501	1,450 ^(F)	1,430 ^(F)

- 7월 FOMC 금리동결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연준 의장 발언이 도비시하게 해석되면서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되었음. 그러나 향후 연준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
 - 7월 FOMC를 앞두고 일각에서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금리가 동결되면서 일부 안도감이 유입되었음. 하지만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이 3명에 달하는 등 매파적 기류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긴축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워시 연준 의장은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긴축 효과를 강조하는 등 실제 정책 금리 인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시사되었음. 연준 내부의 의견 대립 등 향후 정책 경로의 불투명성이 가중됨에 따라 달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미-일 당국의 엔화 절상 위한 추가 공조 가능성 등 개입 경계감이 당분간 엔화 강세를 지지하며 강달러 압력 완화할 전망. 한편, 중동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전면전 가능성이 낮고 시장 민감도도 다소 낮아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공동 엔화 매수 개입과 추가 공조 가능성 시사 등 엔저 저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 단기적으로 이는 상대적 달러 약세를 견인함에 따라 달러/원 환율에는 간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반영될 전망
 - 최근 미-이란 간 공습 중단 및 외교적 해법 모색 등 중동 긴장 완화되며 유가도 다시 하락했으나, 향후 갈등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다만, 대규모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시장 내 위험회피 심리가 미치는 영향도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국내 반도체 기업의 달러 매도세에 힘입은 우호적 수급 여건과 환율 하락 기대가 하방 압력을 주도하는 양상. 여기에 견조한 한국 경제 성장세와 한원의 매파적 기조가 더해져 전반적인 원화 강세 흐름을 지지할 전망
 - 국내 주요 반도체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며 매도 우위 수급과 환율 하락 기대가 지속될 전망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도 기조가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점 역시 수급 부담 완화하며 환율 하락세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견조한 펀더멘털 부각된 점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요인으로 판단. 7월 금통위의 금리인상 단행과 향후 매파적 기조 우위 가능성 또한 원화 가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8월 달러/원 환율
1,415~1,450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 연준 매파 기조 강화와 정책 경로 불확실성 등에 따른 달러 변동성 - 중동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심리	- 매도 우위 수급 여건과 환율 하락 기대 - 견조한 국내 경제 펀더멘털과 한은 매파 스탠스 - 엔화 가치 반등에 따른 상대적 약달러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화 전망

최근 미-일 정책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 효과는 단기적으로 엔화 150엔대 흐름 요인. 하지만, BOJ 금리인상 지연 속 상대적 연준 매파 영향과 정부의 일관된 경기부양 의지 등이 소폭 엔화 약세 견인하며 150엔대 후반으로의 상승 예상

7월 달러/엔 평균환율 : 162.2
7월 엔/원 평균환율 : 917.2

■ **(엔화 동향)**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발언에 따른 달러 약세와 일본 당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엔화는 강세 출발했으나, 미-이란 갈등 재격화 속 유가 반등에 약세로 전환. 중반 들어, 일본 연금의 국내 투자 확대 가능성과 미 CPI 둔화 안도감, 당국자의 구두개입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중동발 유가 급등 여파로 163엔대 후반까지 상승. 후반, 중동 무력 충돌 중단과 수출기업 매도세에 약세 압력 완화된 가운데, 미-일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에 157엔대로 급락 마감

8월 엔/원 예상범위 : 905~920원

■ **(엔화 전망)** 미-일 정책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의 강한 강도 영향이 단기적 엔화 150엔대 후반 지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추가 정책 공조 영향 제한될 전망과 최근 유가 하락 요인 등에 의한 정책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및 일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일관성 유지 등이 소폭 엔화 약세에 영향 미치면서 150엔대 후반 등락 예상

- 7월 단행된 미-일 정책 당국 엔화 강세 유도 개입은 일본의 미 국채 매도 가능성 차단과 대미투자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단기적 150엔대 엔화 움직임을 중단기적 지지할 전망이다
- 하지만, 미-이란 휴전 협상 전환에 따른 유가 하락과 일본 정부 경기 중시 확장적 재정확대 정책 일관성 유지 지속 가능성 등으로 엔화 추가 강세 제한 속 150엔대 후반으로 점진적 약세보이면서 장기 흐름 유지할 전망이다

유로화 전망

유로존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ECB 금리 동결 전환에도 대외적 연준 의장의 도비시 영향의 상대적 반영과 최근 중동전쟁 협상 전환 기대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의 경기 모멘텀 강화 기대 등이 유로화 소폭 강세 지지할 전망이다

7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422
7월 유로/원 평균환율 : 1,697.9

■ **(유로화 동향)** 유로존 물가 둔화 속 ECB 추가 긴축 전망 약화로 유로화는 약세 출발했으나,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준 긴축 경계감이 누그러지자 1.14달러대로 반등. 중반 들어,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성장 둔화 리스크가 부각되며 다시 약세로 전환했으나, 미 CPI 둔화 속 연준 매파 성향 완화 기대가 형성되며 반등. 후반 들어, ECB 인사들이 추가 긴축에 신중한 스탠스 보이자 다시 약세로 돌아섰으나, 미-이란 공습 중단 소식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자 강세 전환해 1.15달러대 마감

8월 유로/원 예상범위 : 1,635~1,655원

■ **(유로화 전망)** 우-러 전쟁 양상 지속과 중동 이슈 불확실성 등이 유로존 경제 모멘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유로 약세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판단.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대이란 공습 중단과 이에 따른 유가 하락 추세 전환으로 달러 약세 흐름 다소 지지될 전망이다 등이 유로 강세 견인할 전망이다

- 중부유럽 전쟁 격화 양상과 현 중동 이슈가 미국 미사일 재고 부족 등으로 협상 가능성에 있지만, 상호 협상 결렬 시 재차 공습 격화하며 유가 급등 이슈로 유로 경제 성장 제한할 가능성. 이는 유로 약세 견인 요인
- 하지만, 대외적 연준의 향후 지표 확인 후 정책 결정 가능성 속 위시 의장 상대적 도비시 성향 등을 유로화가 반영할 전망이다 속에 중동 이슈 협상 여지에 따른 단기적 안정은 유가 하락 통해 유로 강세 지지할 것으로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8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3 미 재무부 분기 자금조달 추정치 발표 한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2.1) 미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중 7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51.7) 유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일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4 AMD 실적 발표 [자통자] 연대차/기타 7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 한 7월 CPI(MoM +0.1%, YoY +3.2%) CPI 근원(YoY +2.5%) 미 6월 수출/입(MoM -3.2%, +3.3 %), 무역수지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5 지준일 미 재무부 국제 발행 계획(QRA) 발표 미 7월 ADP취업자 변동(98k)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중 7월 레이팅독 종합 PMI(53.6)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54.1) 유 6월 소매판매(MoM +0.2%, YoY +1.6%) PPI(MoM +0.2%, YoY +5.9%) 7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일 7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F]	6 스페이스X, 1차 보호예수(Lock-up) 해제일 DEF CON 34 (~9) 한 6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7월 Challenger 해고자 지수(YoY -4.5%)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7월 도쿄 평균 사무실 공실률(1.9%) 호주 무역수지	7 미 고용보고서 미 7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57k) DEF CON 34 (~9) 민간 부문 고용자수 변동(49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2%) 소비자신용지수 뉴욕 연연 1년 기대인플레이션 중 7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27.0%, +36.0%)	8
9	10 미국 의회 여름 휴회(~9/11) : 8월 중순~9월 초 미 의회 휴회로 입법 정책 공백기 RBA 통화정책회의(~11)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35%로 동결 테슬라, FSD 두둑해 전환 [자통자] 중국 판매 데이터 발표 유 8월 섀탁 투자자기대지수(~3.1) 일 7월 경기관찰조사 연평균(44.0) 6월 경상수지, BOI외환 요약발표	11 [유정] 일본(산의 날) 미국 위스콘신 미네소타-코네티컷버몬트주 프라이머리 미 EIA 단기 에너지 전망(STEO) 발표 한 8월 1~10월 수출/입 (YoY +53.9%, +17.4%) 미 7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7.4) 기준주택매매(MoM -2.4%)	12 I MSCI 분기 리뷰, 미 CPI MSCI 분기 리뷰 OPEC, IEA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 구글 Made by Google 2026 [가이드] 달러서스 코스트액 성장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한 7월 실업률(2.7%) 미 7월 CPI(MoM -0.4%, YoY +3.5%) CPI 근원(MoM +0.0%, YoY +2.6%) 일 7월 통화량 M2(YoY +2.2%)	13 한국 옵션만기일 한국 옵션만기일 한 7월 PPI(MoM -0.3%, YoY +5.5%) PPI 근원(MoM +0.2%, YoY +4.7%) 유 6월 산업생산(MoM -0.2%, YoY -1.2%) 일 7월 PPI(MoM +0.4%, YoY +7.1%) 영국 GDP 성장률,무역수지 제조업 생산 (YoY 2.3%,MoM 0.1%)	14 한 6월 통화공급 M2(MoM +0.8%) 7월 수입물가(MoM -4.4%, YoY +20.6%) 수출물가(MoM +0.0%, YoY +48.9%) 미 7월 소매판매(MoM -0.2%) 근원 소매판매(MoM -0.2%) 8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유 6월 무역수지 2Q GDP[S](QoQ -0.1%, YoY +0.3%) 고용[P](QoQ +0.1%, YoY +0.5%)	15
16	17 한국휴장 [유정] 한국(광복절 대체 휴일) 영국 2026 외환시장 심포지엄(SFX)(~18) 미 8월 뉴욕 엔지니어스테이트 제조업(15.6) NAHB 주택시장지수(34) 중 7월 기준 주택가격률(MoM -0.3%) 광공업생산, 실업률(5.0%) 소매판매(YoY +1.0%) 일 6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 2Q GDP[P](QoQ +0.5%, YoY +3.2%)	18 미 7월 수입물가(MoM +0.3%, YoY +7.1%) 수출물가(MoM -0.6%, YoY +10.2%) 주택착공건수, 건축허가[P]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미컬주택매매(MoM -5.4%) 8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8.7) 유 8월 ZEW 경기전망지수(23.4) 영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감,실업률 독일 ZEW경제심리지수	19 미국 7월 FOMC 의사록 공개 [재진]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이노스페이스, 세비(SEBIT) 첫 시험 비행 예정 AI 서밋 서울 & 엑스포(~21) 2026 북경 로보 박람회(~23) 2026 국제 병원 엑스포 박람회(KHF)(~21) 유 7월 CPI[F](YoY +2.8%) CPI 근원[F](YoY +2.4%)	20 스페이스X, 2차 보호예수(Lock-up) 해제일 2026 천지기술 심포지엄(~21) 미 8월 발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41.4) 유 6월 건설 생산(MoM +0.4%) 일 7월 수출/입(YoY +19.3%, +25.4%),무역수지 연준 고용증감,실업률 독일 7월 PPI(YoY +1.8%,MoM -0.3%)	21 미국 옵션만기일 한 7월 PPI(YoY +8.6%) 8월 1~20일 수출/입(YoY +52.3%, +20.0%) 미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호주 고용증감,실업률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소비자기대지수 일 8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P] S&P 글로벌 제조업 PMI[P]	22
23/30	24/31 · 8/24 국제 항공우주공약 및 우주기술 학술대회(~25) 미 7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미 7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 8/31 [유정] 영국(여름 은행 휴무일) MSCI 분기 리밸런싱 적용일 한 7월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미 8월 델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중 8월 제조업, 비제조업, 종합 PMI 일 7월 광공업생산[P],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25 [재진]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 코어인덱스 CS 20개 도시 7월 신규주택매매 8월 발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현황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26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연대차 CEO 인베스트 데이 [재진]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한 8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서비스업 기업경기실사지수 미 7월 PCE, PCE 근원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2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S] 일 7월 PPI 서비스	27 한국 금통위, 연준 잭스홀 미팅(~29) 28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75%로 25bp 인상하며 긴축 전환. 이번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 주목 연준 잭스홀 미팅(~29) : 하반기 연준 통화정책 방향성 확인. 율에 주제는 '금융 혁신: 지급결제 및 정책 시사점' [재진]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미 8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29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잭스홀 미팅 기조연설 2026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FC 2026) 유럽 성장악화(ESC)(~31) 미 8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MNE 시카고 PMI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7월 실업률, 소매판매 8월 도쿄 CPI, 도도 근원 CPI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